

## 변수와 속성으로 분석한 『內經』의 太少陰陽 분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교수  
조학준\*\*

### Classification of Tai/Shao-Yin/Yang in the *Huangdineijing*, Analyzed in terms of Variables and Attributes\*

Jo Hak-jun\*\*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o analyze the classification of Tai/Shao and Yin/Yang in the *Huangdineijing* based on statistical concepts.

**Methods** : Examples of Tai/Shao and Yin/Yang classification in the *Huangdineijing* were analyzed in terms of variables and attributes. Based on the findings, the Sasang division in medical cosmology was interpreted in the perspective of variables.

**Results** : Of the classifications, 24 hours in a day, region, depth of lesion, the Five Types of people used one variable and four attributes each, while the organs(Liver, Heart, Lung, Kidney) and material medica used two variables and two attributes. Within these examples, the frequency of attributes following variables such as time, latitude, depth, Yin/Yang, height were different in each case.

**Conclusions** : From a statistical standpoint, the Tai/Shao-Yin/Yang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Huangdineijing* is not singular, nor is its variables. Therefore, to classify a certain phenomenon using the Tai/Shao-Yin/Yang concept, such features must be considered.

**Key words** : Tai/Shao-Yin/Yang, Yin/Yang, classification, variable

\* 이 논문은 2024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82-43-649-1347. Fax: +82-43-649-1702. E-mail: palm01@hanmail.net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다.

Received(July 20, 2024), Revised(August 7, 2024), Accepted(August 17, 2024)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음양’이라는 단어는 전국 시대 이전의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에서 비롯되어 햇빛의 향배(向背)와 같은 자연 현상을 의미하다가 전국 시대 노자(老子), 장자(莊子), 공자(孔子)의 제자, 추연(鄒衍) 등을 통해 무형(無形) 무상(無象)의 상호 대립하는 두 가지 성질로 대체되었고 천문과 농업까지 하나의 학설로서 확산하였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사물의 두 측면을 가리키는 말로 더욱 확대되고 오행과 합쳐진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황제내경』에서 인체와 자연, 장부 등 다양한 관계를 음양오행의 조화와 부조화로 설명하였다.<sup>1)</sup>

한편 ‘사상(四象)’이라는 어휘는 『주역』 「계사상」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sup>2)</sup> 그와 관련된 표현으로서 태양(太陽) 또는 노음(老陰), 소음(少陰), 소양(少陽), 태음(太陰) 또는 노음(老陰)과 양중지양(陽中之陽), 양중지음(陽中之陰), 음중지양(陰中之陽), 음중지음(陰中之陰) 등 다른 어휘도 흔히 사용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太陽), 소음(少陰), 소양(少陽), 태음(太陰) 등 태소음양은 『내경』의 오태인(五態人)이나 사상의학 등에서 체질의 명칭 또는 개념으로 분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양중지양(陽中之陽), 양중지음(陽中之陰), 음중지양(陰中之陽), 음중지음(陰中之陰) 등은 한의학 기초 영역에서 주로 음양의 속성 중 음양호장(陰陽互藏<sup>3)</sup>) 또는 음양의 소장(消長)·평형(平衡)<sup>4)</sup>을 의미하거나, 상부·하부, 배부(背部)·복부(腹部) 등 인체의 조직 구조를 계층적·단계적으로 분류하는<sup>5)</sup>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문(素問)·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에서 남녀의 성장, 발육 과정에서 여자는 7세(소양의 수에 해당), 남자는 8세(소음의 수에 해당)를 하나의 단계로 삼거나<sup>6)</sup> 『소문

·금계진언론』에서 오행에 배속된 숫자<sup>7)</sup> 등은 의역학(醫易學) 관점에서 사상의 수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사상과 오행의 연관성과 같은 내용은 현재 한의학 기초 영역에서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서적<sup>8)</sup>에서 음양에서 사상, 팔괘(八卦)로 분화하는 2분화법과 음양에서 삼음삼양(三陰三陽)으로 분화하는 3분화법이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다.

음양, 사상을 진단에 적용하려면 변별, 즉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계학의 관점을 빌려 그것을 변수(variable), 속성(attribute)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상(四象) 또는 태소음양의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RISS(riss.kr), CNKI(www.cnki.net)를 통해 ‘四象’, ‘太陽’, ‘少陰’, ‘少陽’, ‘太陰’으로 검색하면, 주로 사상체질의학, 의역학에서 각각 체질 분류, 사변적 측면의 연구가 다수 있지만, 사상 또는 태소음양의 변별에 변수, 속성을 고려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내경』에서 언급된 태소음양 분류 사례들을 변수, 속성 등 통계학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역학의 사상(四象) 분화를 변수, 속성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 II. 자료 및 연구 방법

『내경』과 그 주석서에서 태소음양 분류 사례에 대한 원문과 설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것에 변수와 속성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의역학에서 음양, 사상으로 분화되는 단계를 재해석하였다.

## III. 본론

태양과 태음은 각각 순양(純陽)과 순음(純陰)으로

1)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 동의생리학(제3판). 원주. 의방출판사. 2024. pp.32-34.  
2) 추만호. 사상(四象). 대전. 우리문화연구원. 2003. p.31.  
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 동의생리학(제3판). 원주. 의방출판사. 2024. p.38.  
4)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889.  
5) 진강, 서의병 주편. 김병수 번역 및 해설. 한의학 기초이론. 원주. 의방출판사. 2023. p.88.

6) 李浚川 편.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역. 醫易學思想.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p.133-134.  
7) 李浚川 편.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역. 醫易學思想.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128.  
8) 진강, 서의병 주편. 김병수 번역 및 해설. 한의학 기초이론. 원주. 의방출판사. 2023. pp.96-97.

양과 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나, 소양과 소음은 각각 음 가운데의 양, 양 가운데의 음이라 음과 양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양은 양인가, 음인가? 소음은 양인가, 음인가? 또한 소음과 소양 중 어느 것이 양이 더 많은가? 소양은 양이 음보다 적은가, 많은가?

이에 대한 대답은 『영추(靈樞)·통천(通天)』의 “태음인은 음이 많고 양이 없으며, 그 음혈(陰血)이 혼탁하고 그 위기(衛氣)가 원활하지 않다. … 소음인은 음이 많고 양이 적으며, 위(胃)가 작고 장(腸)이 커서 육부(六腑)가 조화롭지 않다. … 태양인은 양이 많고 음이 적다. … 소양인은 양이 많고 음이 적으며, 경맥이 작고 낙맥이 크다. … 음양이 화평한 사람은 음양의 기가 온화하고 혈맥(血脈)이 고르다. …”<sup>9)</sup>와 『유경(類經)·장상류(藏象類)』 「인유음양치분오태(人有陰陽治分五態)」의 “자세히 말하면, 타고난 체질이 순음(純陰)인 자는 태음이고 음이 많고 양이 적은 자는 소음이고 순양(純陽)인 자는 태양이고 양이 많고 음이 적은 자는 소양이며, 음양이 화평한 사람까지 아울러서 오태인(五態人)으로 구분한다.”<sup>10)</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적을 소(少)’가 포함된 어휘인 소양(少陽), 소음(少陰)은 각각 ‘양이 적다’ ‘음이 적다’로 해석될 것 같지만, 도리어 소양은 ‘양이 많고 음이 적다.’, 소음은 ‘음이 많고 양이 적다.’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음양이 많고 적다면 그 음양은 계량, 측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통계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영추·통천』에서 음, 양을 변별할 때 변수 1개(음과 양)가 적용된다고 보면, ‘음이 많고 양이 없음’(태음), ‘양이 많고 음이 없음’(태양), ‘음이 많고 양이 적음’(소음), ‘양이 많고 음이 적음’(소양)을 측정할 때 고려할 변수는 1개일까, 2

개일까?

또한,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 “역(易)에 태극(太極)이 있어서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는다.”<sup>11)</sup>라고 하였는데, 장개빈은 태극에서 둘로 나뉘어 음양이 되는 것을 대음양(大陰陽)으로, 음양이 다시 둘로 나뉘어 사상이 되는 것을 소음양(小陰陽)으로 명명하였다.<sup>12)</sup>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뉘는 1단계와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뉘는 2단계에서 모두 둘로 나뉘는 것은 같은데 굳이 ‘대음양’, ‘소음양’으로 구분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두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통계학의 개념, 즉 변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 1. 『내경』에 언급된 태소음양 관련 어휘

『내경』에 언급된 태소음양 관련 어휘는 주로 ‘陰/陽+(中)+之(有)+陰/陽’ 형태로 나타나며 종종 ‘陰/陽+(中)+之+太陰/少陰/少陽/太陽’ 형태도 발견된다.

『내경』 주석가는 대체로 이런 형태를 사상의 다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개빈은 『유경부익(類經附翼)·의역의(醫易義)』 복희육십사괘원도(伏羲六十四卦圖圓)(그림 1)에서 복괘(復卦, ☱)부터 동인괘(同人卦, ☲)까지는 내괘(內卦)가 진괘(震卦, ☳), 이괘(離卦, ☲)인 영역으로 음중소양(陰中少陽) 16개 괘가 해당하고 사람으로는 16세까지에 해당하며, 임괘(臨卦, ☳)부터 건괘(乾卦, ☰)까지는 내괘가 태괘(兌卦, ☱), 건괘(乾卦, ☰)인 영역으로 양중태양(陽中太陽) 16개 괘가 해당하고 사람으로는 32세까지에 해당하며, 구괘(姤卦, ☴)부터 사괘(師卦, ☶)까지는 내괘가 손괘(巽卦, ☴), 감괘(坎卦, ☵)인 구역으로 양중소음(陽中少陰) 16개 괘가 해당하고 사람으로는 48세까지에 해당하며, 둔괘(遁卦, ☶)부터 곤괘(坤卦, ☷)까지는 내괘가 간괘(艮卦, ☶)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302-303.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瀟 …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府不調 …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 陰陽和平之人, 陰陽之氣和, 血脈調 …”

10) 張介賓. 類經附翼(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9. “蓋以天稟之純陰者曰太陰, 多陰少陽者曰少陰, 純陽者曰太陽, 多陽少陰者曰少陽, 并陰陽和平之人而分爲五態也.”

11)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9. p.42.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12) 張介賓. 類經附翼(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6. “蓋以一歲言, 則冬至以後屬陽, 夏至以後屬陰, 以一日言, 則子時以後屬陽, 午時以後屬陰, 所謂大陰陽也, 子陽離陰, 寅陽卯陰之類, 所謂小陰陽也.”

☷, 곤괘(坤卦, ☷)인 영역으로 음중태음(陰中太陰) 16개 괘가 해당하고 사람으로는 64세에 해당한다.”<sup>13)</sup>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양중태양(陽中太陽), 양중태음(陰中太陰) 등의 어휘는 『영추·음양계일월』 등의 그것(陽中之太陽, 陰中之太陰)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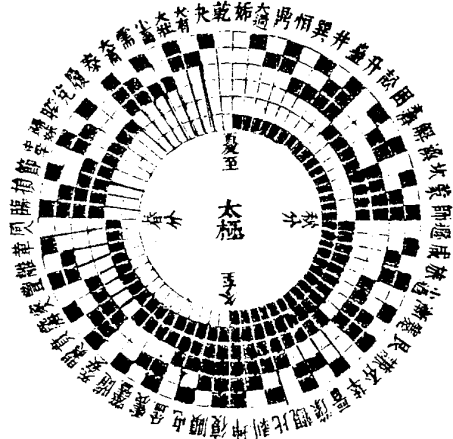


그림 1. 伏羲六十四卦圓圖

이에 『황제내경장구색인(黃帝內經章句索引)]<sup>14)</sup>에 근거하여 『내경』에서 언급한 태소음양 관련 어휘와 그 출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소양은 음중지양(陰中之陽), 음중유양(陰中有陽) 외에도 양중지소양(陽中之少陽)으로도 표현되었으나 『신교정(新校正)]에서 “『전원기(全元起)본(本)]과 『갑을경(甲乙經)]과 『태소(太素)]에 의거하여 ‘음중지소양(陰中之少陽)’으로 수정해야 한다”<sup>15)</sup> 하였다.

표 1. 『내경』에서 언급한 陰陽과 四象(小陰陽)

사상	관련 어휘	출전(『내경』 편명)
太陽	陽中之太陽	『소문·육절장상론(六節藏象論)], 『영추·구침십이원론(九鍼十二原論)], 『영추·경수(經水)], 『영추·음양계일월(陰陽繫日月)]
	陽中之太陽也	『영추·음양계일월]
	陽中之陽也	『소문·금궤진언론(金匱眞言論)]
	陽中之陽心也	『소문·금궤진언론]
	陽中有陽	『소문·금궤진언론], 『영추·수요강유(壽夭剛柔)]
太陰	陽之陽者	『영추·수요강유]
	陰中之太陰	『영추·구침십이원론], 『영추·음양계일월]
	陰中之太陰也	『영추·음양계일월]
	陰中之陰也	『소문·금궤진언론]
	陰中之陰	『소문·음양이합론], 『영추·경수]
	陰中之陰也	『소문·금궤진언론]
	陰中之陰腎也	『소문·금궤진언론]
	陰中有陰	『소문·금궤진언론], 『영추·수요강유]
陰之陰	『영추·수요강유]	
少陽	陽中之少陽	『소문·육절장상론]
	陰中之少陽	『소문·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 『영추·구침십이원론], 『영추·음양계일월]
	陰中之少陽也	『영추·음양계일월]
	陰中之陽	『소문·음양이합론]
	陰中之陽也	『소문·금궤진언론]
	陰中之陽肝也	『소문·금궤진언론]
	陰中有陽	『소문·천원기대론(天元紀大論)]
	陰之陽	『소문·음양응상대론]
少陰	陽中之少陰	『영추·구침십이원론]
	陽中之少陰也	『영추·음양계일월]
	陽中之陰	『영추·경수]
	陽中之陰也	『소문·금궤진언론]
	陽中之陰肺也	『소문·금궤진언론]
	陽中有陰	『소문·천원기대론]
	陽之陰	『소문·음양응상대론]
	陽之陰者	『영추·수요강유]
至陰	陰中之至陰	『영추·구침십이원론], 『영추·음양계일월]
	陰中之至陰脾也	『소문·금궤진언론]

13) 張介賓. 類經附翼(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8. “自復至同人, 當內卦震離之地, 爲陰中少陽之十六, 在人爲二八; 自臨至乾, 當內卦兌乾之地, 爲陽中太陽之十六, 在人爲四八; 自姤至師, 當內卦巽坎之地, 爲陽中少陰之十六, 在人爲六八; 自遁至坤, 當內卦艮坤之地, 爲陰中太陰之十六, 在人爲八八.”

1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p.1383-1384, 1394-1395.

15)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7.

## 2. 『내경』 태소음양의 분류 사례

사회과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으로 정의되며, 사회현상을 압축된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 관찰(observation), 실험(experiment)을 통해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의 이론을 지지 혹은 거부하여 새

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자료에 근거하는 과학을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이라 한다. 통계적 가설과 관찰, 면접, 실험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위해 통계학이 필요하다. 통계학의 목적은 얻어진 자료를 단순히 설명, 묘사하려는 것(기술통계학)과 더 나아가 얻어진 자료의 결과를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것(추측통계학)이다.<sup>16)</sup>

『내경』에서 태소음양은 시간, 지역, 인체의 조구조, 병소(病所)의 깊이, 체질, 약물 분류 등 다양한 상황을 설명, 묘사하기 위해 분류 필요성이 있을 때 두루 활용되었다. 태소음양을 분류하려면 변별, 즉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계학 관점을 빌려 대상에 변수(variable), 속성(attribute)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변수는 변하는 모든 수를 말하는데 교육학에서는 이를 변인(變因)으로 부른다. 변수는 X 또는 Y로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X_i$  또는  $Y_i$ 로 표기함은  $i$ 번째 X 값,  $i$ 번째 Y 값을 뜻한다.<sup>17)</sup> 동일 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가 연속해서 반복하여도 않을 경우, 그 현상을 상수(constant)라고 한다.<sup>18)</sup>

변수의 수준 또는 범주를 속성(attribute)이라 하는데, 변수와 속성에 대해 예를 들면 지역은 변수(X)이고 서울( $x_1$ ), 경기( $x_2$ ), 강원( $x_3$ ) 등은 속성이다.

척도(scale)는 사물의 속성(attribute)을 구체화하기 위한 측정의 단위이며, 척도의 종류로는 명명척도(nominal scale), 서열척도(ordinal scale), 등간척도(interval scale), 비율척도(ratio scale), 절대척도(absolut scale)이 있다.<sup>19)</sup>

변수는 속성의 개수에 따라 다시 양분변수, 삼분변수, 다분변수 등으로 구별되는데 음·양은 양분변수, 태양·소음·소양·태음은 다분변수로 볼 수 있다.

이에 『내경』의 태소음양 분류 사례를 변수와 속성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1) 하루 24시간의 구획 : 변수 X(낮·밤의 전반·후반), 속성 $x_1, x_2, x_3, x_4$

『소문·금계진언론』에서 “음 가운데 음이 있고 양 가운데 양이 있다. 해 뜰 무렵(平旦)부터 한낮(日中)까지는 하늘의 양으로 양 가운데의 양이며, 한낮부터 해 질 무렵(黃昏)까지는 하늘의 양으로 양 가운데 음이며, 저녁 무렵(合夜)부터 닭 울 무렵(鷄鳴)까지는 하늘의 음으로 음 가운데 음이며, 닭 울 무렵(鷄鳴)부터 해 뜰 무렵까지는 하늘의 음으로 음 가운데 양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그것과 호응한다.”<sup>20)</sup> 라고 하였다. 『내경』 주석가들은 이 내용에 근거하여 하루 24시간을 세분할 때 낮과 밤은 음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고, 다시 전반기와 후반기는 사상으로 세분하는 기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대음양의 구분 기준이 낮과 밤이고 소음양의 구분 기준이 전반과 후반이라서 대음양과 소음양의 구분 기준이 서로 다른 듯 보인다. 그러나 통계학 관점으로 분석하면, 하루를 ‘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수에 따라 네 개의 속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 2) 지역의 구획: 변수 X(위도), 속성 $x_1, x_2, x_3, x_4$

『영추경수(經水)』에서 “이 오장·육부과 십이경수(十二經水)는 밖으로는 원천이 있고 안으로는 흘러 드는 것이 있으니, 이는 모두 안팎으로 서로 관통하여 고리처럼 끝이 없으니, 사람의 경맥(經脈)도 또한 그렇다. 그러므로 하늘은 양이, 땅은 음이 되니 허리 이상은 하늘과, 허리 이하는 땅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해수(海水) 이북은 음이, 호수(湖水) 이북은 음 가운데의 음이, 장수(漳水) 이남은 양이, 하수(河水) 이북에서 장수까지는 양 가운데의 음이, 탐수(溧水) 이남에서 강수(江水)까지는 양 가운데의 태양이 된다. 이것은 한 구역의 음양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니 사람이 자연계와 상응하기 때문이다.”<sup>21)</sup>라고

16) 성태제. (개정판)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p.3-5.  
17) 성태제. (개정판)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9.  
18) 김병태, 이기재, 연경화, 장원경. 통계학의 이해. 대전. 도서출판 대경. 2007. p.14.  
19) 성태제. (개정판)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p.12-15.

20)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陰中有陰, 陽中有陽, 平旦至日中, 天之陽, 陽中之陽也; 日中至黃昏, 天之陽, 陽中之陰也; 合夜至鷄鳴, 天之陰, 陰中之陰也; 鷄鳴至平旦, 天之陰, 陰中之陽也. 故人亦應之.”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9. “凡此五藏六府, 十二經水者, 外有源泉而內有所稟, 此皆內外相貫, 如環無端, 人經亦然. 故天爲陽, 地爲

하였다.

이 원문에 따라 경수(經水)가 지나가는 위도(인체 부위, 즉 상체·하체와 상음)에 따라 『내경』 성서(成書) 당시 중국 지역을 넷으로 분류한 상황을 간단히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다만, 소양에 해당하는 ‘음중 지양’은 『영추경수』에 본래 없으나 보충하여 넣었다.

이런 분류에서 대음양의 구분 기준이 남, 북이고 소음양의 그것도 남, 북이라서 대음양과 소음양의 구분 기준이 같으므로 변수는 1개이다. 즉 위도(남북)라는 하나의 변수에 따라 지역을 네 개의 속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2. 경수(經水)의 위도에 따른 지역의 4가지 구획

위도 [변수]	경수(經水) [속성]	인체 부위	음 양	사상
북 ↑	호수(湖水) 이북	하체 ↑	陰	陰中之陰
	해수(海水) 이북			(陰中之陽)
↓ 남	장수(漳水) 이남	상체 ↓	陽	陽中之陰
	하수(河水) 이북			
	탐수(溧水) 이남			陽中之太陽
	강수(江水)			

3) 병소(病所) 깊이의 구획: 변수 X(인체 깊이), 속성 X<sub>1</sub>, X<sub>2</sub>, X<sub>3</sub>, X<sub>4</sub>

『영추수요강유』에서 “이런 까닭에 인체 내부에 음양이 있고 외부에도 음양이 있다. 내부에 있는 것은 오장이 음이고 육부가 양이며, 외부에 있는 것은 근골이 음이고 피부가 양이다. 그러므로 ‘병이 음 가운데의 음에 있는 경우는 음경(陰經)의 형혈(榮穴)·수혈(輸穴)에 자침하며, 병이 양 가운데의 양에 있는 경우는 양경(陽經)의 합혈(合穴)에 자침하며, 병이 양 가운데의 음에 있는 경우는 음경(陰經)의 경혈(經穴)에 자침하며, 병이 음 가운데의 양에 있는

경우는 음경의 낙혈(絡穴)에 자침한다.’라고 하였다.”<sup>22)</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병소의 깊이에 따라 4가지 질병 상황으로 나눈 것이다. 비록 4가지 질병 상황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나, 병소(病所)의 깊이(인체 조직기관)라는 한 가지 변수에 따라 4가지 속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병소(病所)의 깊이에 따른 네 구획

깊이 [변수]	조직 [속성]	음양	질병의 사상
외부 ↑	피부	陽	病在陽之陽者
	근골		病在陽之陰者
↓ 내부	육부	陰	病在陰之陽者
	오장		病在陰之陰者

참고로, ‘病在陰之陽者, 病在陽之陽者, 病在陽之陰者, 病在陰之陰者’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장개빈은 대음양의 단계에서 음병(陰病)·양병(陽病)으로 나누고 소음양의 단계에서 음분(陰分)·양분(陽分)으로 나눈 것으로 해석하였고,<sup>23)</sup> 장지총(張志聰)은 표 3과 같이 대음양 단계에서 깊이를 내외로 나누고 소음양 단계에서 다시 세분하여 피부·근골·육부·오장으로 해석하였다.<sup>24)</sup>

4) 오태인(五態人)의 분류: 변수 X(음양의 다소), 속성 X<sub>1</sub>, X<sub>2</sub>, X<sub>3</sub>, X<sub>4</sub>, X<sub>5</sub>

『영추통천』에서 “태음인은 음이 많고 양이 없으며, 그 음혈(陰血)이 혼탁하고 그 위기(衛氣)가 원활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7. “是故內有陰陽, 外亦有陰陽. 在內者, 五藏爲陰, 六府爲陽; 在外者, 筋骨爲陰, 皮膚爲陽. 故曰, 病在陰之陰者, 刺陰之榮輸; 病在陽之陽者, 刺陽之合; 病在陽之陰者, 刺陰之經; 病在陰之陽者, 刺絡脈.”

23)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91. “陰之陰者, 陰病在陰分也. … 陽之陽者, 陽病在陽分也. … 陽之陰者, 陽病在陰也. … 陰之陽者, 陰病在陽也.”

24)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張志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94. “病在陰之陰者, 病內之五臟 … 病在陽之陽者, 病在外之皮膚 … 病在陽之陰者, 病在外之筋骨 … 病在陰之陽者, 病在內之六腑.”

陰, 腰以上爲天, 腰以下爲地. 故海以北者爲陰, 湖以北者爲陰中之陰, 漳以北者爲陽, 河以北至漳者爲陽中之陰, 溧以南至江者爲陽中之太陽, 此一隅之陰陽也, 所以人與天地相參也.”

하지 않다. ... 소음인은 음이 많고 양이 적으며, 위(胃)가 작고 장(腸)이 커서 육부(六腑)가 조화롭지 않다. ... 태양인은 양이 많고 음이 적다. ... 소양인은 양이 많고 음이 적으며, 경맥이 작고 낙맥이 크다. ... 음양이 화평한 사람은 음양의 기가 온화하고 혈맥(血脈)이 고르다. ... 이는 음양으로 다섯 가지 형태의 사람을 구분함을 말한 것이다.”<sup>25)</sup>라고 하여 ‘오태인(五態人)’ 체질 분류를 언급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분류할 때 음양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적용하여 음과 양의 다소에 따라 네 가지 속성으로 구분하되, 예외적으로 음양의 비율이 균등하여 음 또는 양으로 치우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을 인식하고 한 가지 속성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사장(四臟)의 분류: 변수 X(높이), 속성  $x_1, x_2$ (상하), 변수 Y, 속성:  $y_1, y_2$ (奇偶)**

『소문·금궤진언론』에서 사람의 음양(대음양)을 내외로, 인체의 음양(대음양)을 등(태양)에 주로 노출되는 후면)과 배(태양)에 주로 노출되지 않는 전면)로, 장부의 음양(대음양)을 오장(음)과 육부(양)로 구분하고, 다시 비(脾)를 제외한 사장(四臟)에 대해 음양(대음양)과 사상(소음양) 2단계로 분류하였다. 즉, 심(心)은 양 가운데의 양(陽中之陽), 폐(肺)는 양 가운데의 음(陽中之陰), 간(肝)은 양 가운데의 음(陽中之陰), 신(腎)은 음 가운데의 음(陰中之陰)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비(脾)가 음 가운데의 지음(陰中之至陰)임을 언급<sup>26)</sup>함으로써 사상과 오행의 연관성도 시사하였다. 이런 분류 방식은 『소문·육절장상론』, 『영추구침십이원론』, 『영추음양계일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편에서 사장(四臟)을 음양, 사상으로 분류할 때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왕빙(王冰)은 삼-폐는 인체의 상부, 즉 상초(上焦)에, 간신은 인체의 하부, 즉 하초(下焦)에 위치하므로 대음양에서 삼-폐는 양, 간신은 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장개빈, 마시(馬蒔), 오곤(吳崑) 등 많은 주석가들이 그 설명을 따랐다.

왕빙은 다시 『영추·순기일일분위사시(順氣一日分爲四時)』 “肝爲牡藏 … 心爲牡藏 … 脾爲牝藏 … 肺爲牝藏 … 腎爲牝藏”에 근거하여 다시 삼-폐는 각각 양인 모장(牡藏)과 음인 빈장(牝藏)이므로 양 가운데의 양, 양 가운데의 음으로 분류하고 간신은 각각 모장, 빈장이므로 음 가운데의 양, 음 가운데의 음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삼-간은 모장에, 폐-신은 빈장에 속하는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장개빈은 삼-간을 양으로, 폐-신을 음으로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 장개빈은 심은 스스로 밝은 태양(日)에, 폐는 태양에 의해 밝기가 달라지는 천체에 비유하기 때문이고, 간은 인체에서 목(木)에 속하여 양으로, 신은 인체에서 수(水)에 속하여 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또한 비(脾)는 인체에서 토(土)에 속하여 지음(至陰)으로 분류됨<sup>27)</sup>을 설명하였다. 그가 대음양에서 다시 소음양, 즉 사상으로 분화하는 단계를 다른 주석가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삼-폐의 구분 기준(변수 X: 밝기)과 간-신의 구분 기준(변수 Y: 木水)이 동일하지 않다.

**6) 약물의 분류: 변수 X, 속성  $x_1, x_2$ (氣味), 변수 Y, 속성:  $y_1, y_2$ (厚薄)**

『소문·음양응상대론』에서 “그러므로 인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니, 청양은 인체 상부에 있는 칠규(七竅)로 나오고 탁음은 인체 하부에 있는 이규(二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302-303.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瀟 …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府不調 … 太陽之人, 多陽而少陰 …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 陰陽和平之人, 其陰陽之氣和, 血脈調, … 此所以謂陰陽別五態之人者也”

26)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2. “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身之藏府中陰陽, 則藏者爲陰, 府者爲陽. 肝心脾肺腎五藏, 皆爲陰,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六府, 皆爲陽. … 故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

27)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 “陽中又分陰陽, 則心象人之日, 故曰牡藏, 爲陽中之陽. 肺象人之天, 天象玄而不自明. 朱子曰天之無星空處謂之辰. 故天體雖陽, 而實包藏陰德, 較乎日之純陽者, 似有爲間. 故肺曰牝藏, 爲陽中之陰. 若陰中又分陰陽, 則腎屬人之水, 故曰牝藏, 陰中之陰也. 肝屬人之木, 木火同氣, 故曰牡藏, 陰中之陽也. 脾屬人之土, 其體象地, 故曰牝藏, 爲陰中之至陰也.”

竅)로 나오며 청양은 주리(腠理)로 발산케 하고 탁음은 오장으로 달려가며 청양은 사지를 건실하게 하고 탁음은 육부로 돌아간다. ... 수(水)는 음에 속하고 화(火)는 양에 속한다. 양은 기(氣)가 되고 음은 미(味)가 된다. ... 음에 속하는 미(味)는 하규(下竅)로 나오고 양에 속하는 기(氣)는 상규(上竅)로 나온다. 미(味)가 진한 것은 음에 속하고 열은 것은 양에 속하며, 기(氣)가 짙은 것은 양(陽)에 속하고 열은 것은 양 중의 음에 속한다. 미(味)가 진한 것은 설사하게 하고(泄) 열은 것은 통하게 하며(通) 기(氣)가 열은 것은 발산하게 하고(發泄) 짙은 것은 열이 나게 한다(發熱). ... 약물, 음식 등의 기(氣)와 미(味)를 분류하면 신감(辛甘), 발산(發散)은 양에 속하고 산고(酸苦), 용설(涌泄)은 음에 속한다.”<sup>28)</sup>라고 하였다.

참고로, 위의 원문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예를 들면, 주리로 발산하게 하는 청양과 사지를 건실하게 하는 청양은 같은 것인가? 오장으로 달려가는 탁음과 육부로 돌아가는 탁음은 같은 것인가? ‘기미(氣味)’의 기(氣)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즉 냄새를 가리키는가? 설(泄)[味厚], 통(通)[味薄], 발설(發泄)[氣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내경』 주석가들은 대체로 이 내용에 근거하여 약물에 대해 기(氣)와 미(味)는 음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고, 후(厚)와 박(薄)은 사상으로 세분하는 기준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음양에서의 구분 기준(변수 X)은 기와 미이고 소음양에서의 구분 기준(변수 Y)은 후(厚)와 박(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원소(張元素)는 『내경』 태소음양 분류에 기초하여 독특한 본초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의학계원(醫學啓源)-용약비지(用藥備旨)』(1186)에서 『소문·금궤진언론』의 사장(四臟) 분류와 『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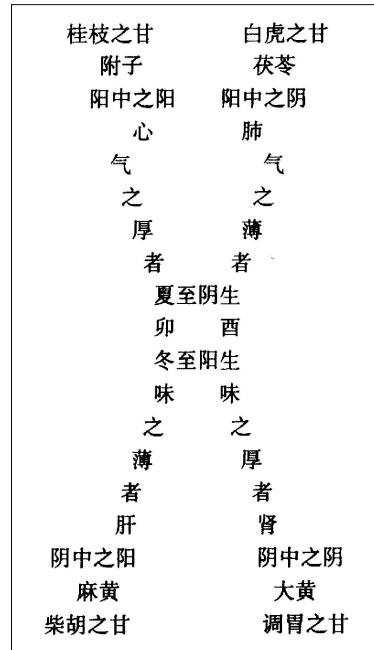


그림 2. 氣味厚薄寒熱陰陽升降之圖

음양상대론’의 기미 후박 분류를 결합하여 「기미 후박한열음양승강지도(氣味厚薄寒熱陰陽升降之圖)」(그림 2)를 제시하였다.

그는 그가 만든 본초 분류 체계에 대해 설[味厚]은 대황(大黃)의 사하(瀉下)를, 통[味薄]은 복령(茯苓)의 이수(利水)를, 발설[氣薄]은 마황(麻黃)의 발한을, 발열[氣厚]은 부자(附子)의 온리(溫裏)를 그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支, 濁陰歸六府”에 대해 ‘청양발주리(清陽發腠理)’는 청지청자(淸之淸者)로, ‘청양실사지(淸陽實四支)’는 청지탁자(淸之濁者)로, ‘탁음귀육부(濁陰歸六府)’는 탁지탁자(濁之濁者)로, ‘탁음주오장(濁陰走五藏)’은 탁지청자(濁之淸者)로 구분한다고 설명하였다.<sup>29)</sup> 이천(李樞)은 『의학입문(醫學入門)-본초총괄(本草總括)』(1575)에서 『의학계원-용약비지』의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그는 청지청자(發腠理)는 양중지양[發

28)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7. “故清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支, 濁陰歸六府. ...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 陰味出下竅, 陽氣出上竅. 味厚者爲陰, 薄爲陰之陽; 氣厚者爲陽, 薄爲陽之陰.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 ... 氣味,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29) 張元素. 醫學啓源(張元素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8.



熱]으로 부자를, 청지탁자(實四支)는 양증지음[通]으로 복령을 그 예로 들었으나, 탁지탁자는 주오장(走五藏)에 해당하며 음증지음[泄]으로 대황을, 탁지청자는 귀육부(歸六府)에 해당하며 음증지양[發泄]으로 마황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sup>30)</sup>

장원소는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支, 濁陰歸六府”와 “味厚則泄, 薄則通; 氣薄則發泄, 厚則發熱”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으나 이친은 두 문장 모두 사상의 관점으로 해석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支, 濁陰歸六府”에 대해 기미의 후박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장원소는 ‘탁음귀육부’를 탁지탁자로, ‘탁음주오장’을 탁지청자로 분류하였지만 이친은 ‘탁음주오장’을 탁지탁자로, ‘탁음귀육부’를 탁지청자로 분류한 점이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장원소가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적용한 기준(변수)은 청탁(淸濁) 한 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그가 음양, 사상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변수 2개로 이해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장개빈(張介賓)을 포함한 『내경』 주석가들 대부분은 “清陽發腠理, 濁陰走五藏; 清陽實四支, 濁陰歸六府”에 대해 淸之淸者, 淸之濁者, 濁之淸者, 濁之濁者의 네 가지 속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청양(淸陽), 탁음(濁陰)의 두 가지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문구를 변수 2개, 속성 2개로 해석한 이친의 견해와 변수 1개, 속성 4개로 해석한 『내경』 주석가들의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변수 1개(X), 속성 4개(x<sub>1</sub>, x<sub>2</sub>, x<sub>3</sub>, x<sub>4</sub>)로 보는 것과 변수 2개(X, Y), 속성 2개(x<sub>1</sub>, x<sub>2</sub>, y<sub>1</sub>, y<sub>2</sub>)로 보는 것은 각각 적용된 변수와 속성이 다르므로 둘은 동일한 분류 체계가 아니다.

종합하면, 변수 관점에서 『내경』의 태소음양 분류 체계는 적어도 한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측정을 통해 어떤 현상을 분류하고자 이를 태소음양 용어로 명명하려면 변수의 개수와 속성의 개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IV. 고찰

『내경』에서 태소음양은 ‘陰/陽+(中)+之(有)+陰/陽’ 또는 ‘陰/陽+(中)+之+太陰/少陰/少陽/太陽’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태소음양을 일종의 분류 체계로 사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류를 현상에 적용하려면 관찰 또는 실험으로 얻은 자료에 변수를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 한데, 측정되거나 관측되는 개체 특성을 통계학에서 변수(variable)라고 한다.<sup>31)</sup>

태소음양은 양증지양(태양), 양증지음(소음), 음증지음(태음), 음증지양(소양)으로 달리 표현하는데 ○ 中之□에서 앞쪽(○)의 양 또는 음과 뒤쪽(□)의 양 또는 음을 구분하는 기준, 즉 변수는 각각 같을까, 다를까?

기준이 서로 같다고 보면 변수(변인)를 1개로 해석한 것이고(그림 3 참고),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면 변수(변인)를 2개로 해석한 것이다(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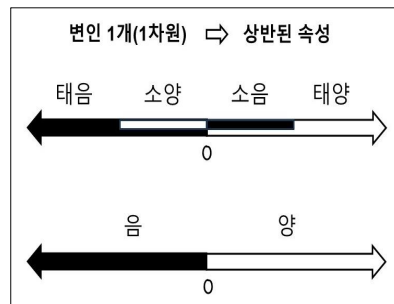


그림 3. 변수 1개로 해석한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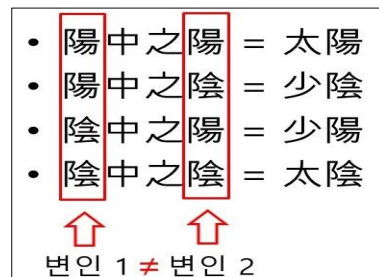


그림 4. 변수 2개로 해석한 사상

30) 李梴 (原本) 編註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593.

31) 이승수, 이병학, 서의훈, 이경준 역. 기초 통계학의 이해. 서울. 교우미디어. 2018. p.3.

본문에서 『내경』과 그 주석서에서 설명한 태소음양 분류 사례를 변수(variable), 속성(attribute)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언급한 변수에서 시간, 위도, 깊이, 음양, 높이, 기우(奇偶), 농도는 비록 모두 연속적인 값을 갖으나, 2개 또는 4개 속성으로 유한하므로 불연속변수에 해당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속성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또한 변수의 척도(scale) 크기(간격)는 모두 동일하나, 그 속성의 빈도(도수 frequency)는 다를 수 있다.

표 4. 태소음양 분류 사례에 적용된 변수와 속성

사례	변수 X	속성	변수 Y	속성	빈도(f)
하루 24 시간	시간	일출·정오·일몰·자정	-	-	일출, 일몰에 따라 변동
지역	위도	極南·이남·이북·極北	-	-	경수의 경로에 따라 변동
병소 깊이	깊이	피부·근골·육부·오장	-	-	사람에 따라 다름
오태인(五態人)	음양	태양·소음·화평·소음·태음	-	-	태양>소음>소양>태음>화평
사장(四臟)	높이	상하	奇偶	奇偶	높이는 사람에 따라 다름
약물 분류	藥性	氣味	농도	厚薄	균등→불균등

표 4에서 하루 24시간에서 ‘시간’ 변수에 대한 태소음양의 빈도는 계절에 따른 일출, 일몰의 시간 변화에 따라 특정 범위에서 일정하게 다르다. 지역에서 ‘위도’ 변수에 대한 빈도는 그 기준이 되는 경수(經水)가 흐르는 경로에 따라 다르다. 병소 깊이에서 ‘깊이’ 변수에 대한 빈도는 사람에 따라 피부·근골·육부·오장의 깊이가 다르다. 사장(四臟)에서 ‘높이’ 변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우’ 변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다.

오태인의 경우, 전체 인구에 대한 태소음양의 빈도(분포 비율)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신경증 환자에 대한 오태인의 비율은 태양 13.21±3.60, 소양 12.33±4.21, 음양화평 6.23±2.25, 소음 13.62±3.77, 태음 9.80±4.99라는 분석 결과<sup>32)</sup>에 따라 오태인 5개 속성의 빈도는 태양>소음>소양>태음>화평의 순으로 표시하였다.

약물 분류의 경우, 『내경』에서 미후(味厚), 미박(味薄), 기박(氣薄), 기후(氣厚) 등 4개 속성을 언급하였으나 4개 속성의 빈도(도수)는 알 수가 없다. 표 4에서 약물 분류 속성의 빈도에 대해서 ‘균등’에서 ‘불균등’으로 바뀌었음을 표시하였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장원소는 약물 분류에서 『내경』에서 언급한 속성 4개에 다시 속성 1개(淡味·平氣)를 추가함으로써 『내경』의 태소음양 학설에 근거하여 독창적인 본초 분류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는 『의학계원·약류법상(藥類法象)』에서 풍승생(風升生)(味薄, 陰中之陽, 平+酸苦鹹), 열부장(熱浮長)(氣厚, 陽中之陽, 溫+熱+辛+甘), 습화성중앙(濕化成中央)(本氣: 平, 兼氣: 溫·涼·寒·熱; 本味: 淡, 兼味: 辛·甘·鹹·苦) 조강수(燥降收)(氣薄, 陰中之陽, 平·寒·涼+辛·甘·淡), 한침장(寒沈藏)(味厚, 寒+酸苦鹹)의 본초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표 약물을 각각 20개 내외로 예시<sup>33)</sup>하였다.

그가 처음 『의학계원』(1186)에서 기미의 후박에 따라 분류한 체계는 『본초집요』(1496) → 『고암의감』(1536) → 『의학입문』(1575)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소속 약물의 구성과 그 갯수가 크게 달라졌다. 해당 서적의 분류 체계와 소속 약물의 개수를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32) 李雯. 118例神經症患者中醫五態性格分析. 中醫雜誌. 2001. 43(2). p.107.

33) 張元素. 醫學啓源(張元素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1-59.

표 5. 본초 분류 체계와 소속 약물의 개수(도수, frequency)

의학계원		대분류	본초집요		고암의감		의학입문			
대분류	개수		하위 분류	개수	하위 분류	개수	하위 분류	개수		
風升生 (味薄)	20	治風門	行氣開表藥	29	→	18	→	18		
			辛熱散寒藥	12						
			祛風化痰藥			12	→	17		
			清熱潤燥藥	48	→	10	→	12		
							治風通用藥	21		
					治風雜用藥	29				
寒沈藏 (味厚)	19	治熱門	治上焦熱藥	31	→	12	→	14		
			治中焦熱藥	38	→	14	→	17		
			治下焦熱藥	27	→	14	→	16		
							治熱通用藥	21		
							治熱雜用藥	29		
濕化成中 (淡味·平氣)	21	治濕門	行濕利大小便藥	34	→	14	→	15		
			治濕熱藥	22						
			治寒濕藥	43						
							補氣除濕藥	6	→	6
							調中消導藥	20	→	22
							治濕通用藥	12		
					治濕雜用藥	20				
燥降收 (氣薄)	21	治燥門	解熱生津藥	27	→	20	→	21		
			滋血潤燥藥	17	→	20	→	26		
							治燥通用藥	19		
							治燥雜用藥	22		
熱浮長 (氣厚)	21	治寒門	治上焦寒藥	8	→	4	→	5		
			治中焦寒藥	21	→	28	→	31		
			治下焦寒藥	11	→	8	→	10		
							治寒通用藥	17		
							治寒雜用藥	14		
		治瘡門	瀉火解熱寒涼藥	34						
			行氣開滯辛溫藥	38						

			治血行血藥	42				
			解毒攻毒藥	149			治瘡毒通用藥	77
					傳諸瘡藥	40	治瘡毒雜用藥	50
		治毒門	解毒藥	80				
			解毒兼治邪藥	40				
			治邪藥	43				
		婦人門	補虛調經安胎藥	40				
			理產和血行氣藥	43				
			攻剋血積藥	10				
		小兒門	治脾病補虛疳瀉藥	32				
			治肝病風熱驚癇藥	46				
			治瘡毒藥	19				
합계	102			984		240		561

장원소가 『의학계원』에서 태소음양을 본초 분류에 처음 적용했을 때, 미박(味薄), 미후(味厚), 기박(氣薄), 기후(氣厚)의 빈도(frequency)는 20:19:21:21:21로 거의 균등하였다. 그러다가 『본초집요』(1496) → 『고암의감』(1536) → 『의학입문』(1575)을 거쳐 약물의 개수가 점차 늘면서 구성비(각 속성에 해당하는 도수)가 달라졌음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경』의 태소음양을 다양한 현상에 대한 분류에 적용하면 그 속성마다 빈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 1. 『역경』의 사상 분화(分化)를 변수로 해석

앞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의역학의 태극-음양-사상의 분화 과정에 변수의 관점을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장개빈은 의역학설(醫易學說)을 창립한 자로 평가 받고 있는데<sup>34)</sup> 그는 『유경부익의역의』 복희육십사

괘원도(그림 1)에서 64괘를 양중태양, 양중소음, 음중소양, 음중태음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역경』에서 태극, 음양, 사상, 팔괘로 점차 나뉘어 단계를 누적하는 것을 대체로 ‘분화(分化)’로 표현하지만, 사상의 분화를 ‘분류’로 활용하였으므로 사상의 분화를 변수의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복희팔괘차서지도(그림 1)는 태극이 음양, 사상, 팔괘로 점차 분화(분류)하는 체계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의역학의 관점에서 그 수(數)에 대해서 태극은  $2^0=1$ , 음양은  $2^1=2$ , 사상은  $2^2=4$ , 팔괘는  $2^3=8$  등으로 설명한다.<sup>35)</sup>

이와 같은 설명은 다시 변수(variable) 또는 차원(dimension)으로 치환될 수 있는데, 즉 태극( $2^0=1$ )은 변수 0개로 0차원, 음양( $2^1=2$ )은 변수 1개로 1차원, 사상( $2^2=4$ )은 변수 2개로 2차원, 팔괘( $2^3=8$ )는 변수 3개로 3차원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팔괘를 이루는 세 효의 의미에 대해 시간, 공간, 물질 3가지로 해석<sup>36)</sup>하거나 태양-달-지구로 해석<sup>37)</sup>기도 하

34) 尹暢烈. 醫易學.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138.

35) 尹暢烈. 醫易學.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168-171.

36) 장지정 저. 오수현 옮김. 주역 완전해석(상권). 서울. 판미

는데, 모두 변수 3개라는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역경』에서 태극, 음양, 사상, 팔괘로의 분화(분류)를 그림 5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복희팔괘차서지도(그림 1)를 분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태극은 분류 이전 단계이고 음양은 1단계 분류, 사상은 2단계 분류, 팔괘는 3단계 분류에 해당한다. 단계마다 변수와 속성이 있는데 1단계의 속성은 음·양으로, 2단계의 속성은 태양·소음·소양·태음으로, 3단계의 속성은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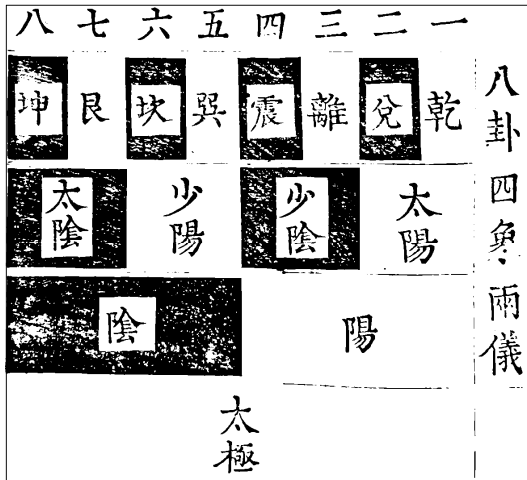


그림 5. 伏羲八卦次序之圖

1) 변수 1개, 속성 4개로 분류

태극에서 양의(兩儀), 즉 음양, 사상으로 점차 분화하는 1단계, 2단계 모두에 변수 1개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도식화하면 앞에서 제시한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태극에서 분화된 음양을 아래쪽의 직선으로, 음양에서 다시 분화된 사상(태양, 소음, 소양, 태음)을 위쪽의 직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1차원적 분류)은 태극에서 음양으로(1차원), 음양에서 사상으로(2차원) 분류되는 그림 5(다

차원적 분류)와는 다르다.

그림 3을 설명하면, 아래쪽 직선은 기준점(0)으로부터 오른쪽은 양에, 왼쪽은 음에 각각 해당하며, 위쪽 직선은 기준점(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먼 구역은 태양(더 큰 양수)에, 가까운 구역은 소음(더 작은 양수)에, 왼쪽으로 먼 구역은 태음(더 작은 음수)에, 가까운 구역은 소양(더 큰 음수)에 각각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같은 개념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경』에 양의, 사상, 팔괘 등의 용어가 등장할 무렵에는 현재와 같은 음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기준점을 임의로 0으로 설정한 이유는 음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설정한 것이다. 즉, 해당 개념의 발생·유행 시기에 음양, 사상 등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0이 아니라 임의의 양수였다.

『주역전의(周易傳義)·역본의도(易本義圖)』에서 사상에 숫자를 배속할 때 “태양의 수는 9이고 소음의 수는 8이며 소양의 수는 7이고 태음의 수는 6이니 … 노양·소음·소양·노음이 본신(本身)의 1, 2, 3, 4를 제하면 곧 9, 8, 7, 6의 수이니 …”<sup>38)</sup>라고 설명하였다.

태양·소음·소양·태음을 각각 성수(成數)인 9, 8, 7, 6과 생수(生數)인 1, 2, 3, 4로 설명한 내용을 그림 4에 반영하면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 그림 7은 모두 변수는 1개이고 속성은 모두 4개임을 나타낸다.



그림 6. 四象과 숫자 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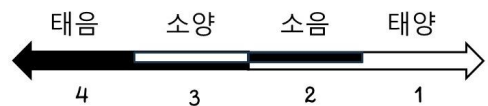


그림 7. 四象과 숫자 배속

동. 2018. p.50.

37) 양력 지음. 강창환, 김남일, 문제곤 옮김. 주역과 중의학 (1). 서울. 법인문화사. 2015. p.232.

38) 成百曉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9. pp.39-40.

표 6. 설시(揲蓍)로 얻은 효(爻)의 판별과 표시

사상	변동	판별: ( )안은 蓍草의 숫자	호칭	숫자	표시
老陰 (또는 太陰)	變爻	三多 (9·8·8)	交	六	
少陽	不變爻	一少兩多 (9·8·4 또는 5·8·8)	單	七	
少陰	不變爻	一多兩少 (9·4·4 또는 5·8·4)	拆(탁)	八	
老陽 (또는 太陽)	變爻	三少 (5·4·4)	重	九	

\* 爻가 少陽이나 少陰일 경우는 변하지 않지만, 老陽은 현재는 陽이지만 動해서 陰이 되고 老陰은 현재는 陰이지만 動해서 陽이 되는 爻로 각각 陽動·陰動이라고 한다. 즉 □, --, ×, -로 각각 變한다.

2) 변수 2개, 속성 2개로 분류

복희팔괘차서지도(그림 1)는 태극에서 음양으로(1단계), 다시 음양에서 사상으로(2단계) 분류되는 과정에 변수 2개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주역전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희(朱熹)는 『주역전의·역본의도』에서 사상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노양(老陽), 노음(老陰), 소양(少陽), 소음(少陰)으로 달리 표현하였고, 『주역전의·명서(明筮)』에서 50개 중 1개를 제외한 49개 시초(蓍草)로 삼변(三變)을 통해 일효(一爻)를 얻는 설시(揲蓍)를 행하면 삼다(三多)(9·8·8), 일소양다(一少兩多)(9·8·4 또는 5·8·8), 일다양소(一多兩少)(9·4·4 또는 5·8·4), 삼소(三少)(5·4·4)를 얻게 되고 이를 각각 노음, 소양, 소음, 노양으로 칭하고 노(老)와 소(少)를 변(變)과 불변(不變)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6<sup>39)</sup>과 같다.

『주역전의·역본의도』와 『주역전의·명서』에서 태소음양을 노소음양(老少陰陽)으로 달리 표현한 것과, 노(老)와 소(少)를 변(變)과 불변(不變)으로 설명한 것으로부터 변수를 2개로 해석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태(太)소(少)는 고정된 양(量)을 표현한 단어이지만 노(老)소(少)는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즉 태

(太)소(少)는 음양의 다소, 강약 등 정적(靜的) 특징(불변)이, 노(老)소(少)는 시간에 따른 음양의 성쇠(盛衰)·전화(轉化)가 반영된 동적(動的) 특징(변동)까지 함께 반영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태소음양은 양(量)이라는 변수 1개가 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소음양은 ‘양(量)’과 ‘시간’ 변수 2개가 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태양의 고도에 따라 빛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시간과 함께 명암까지 고려한 것(변수 2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태양 고도의 변화량은 삼각함수로 표시될 수 있는데, 이를 시간의 흐름(변수  $x$ )에 따라 태양의 고도(변수  $y$ )를 함수( $y = \sin(x)$ )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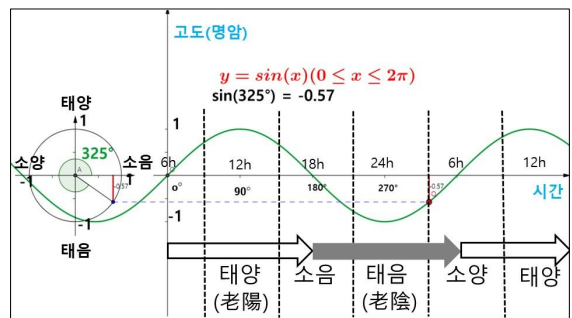


그림 8. 시간에 따른 태양 고도의 변화

39) 金碩鎮. 大山周易占解. 서울. 大有學堂. 1994. p.55.

그림 8에서 소양과 소음은 둘 다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영역이지만 소양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소음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변화한다. 태양과 태음은 둘 다 밝음 또는 어둠만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태양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점차 변화하고 태음은 어둠에서 점차 밝음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이용하여 소음(少陰), 소양(少陽)의 어휘를 각각 ‘음이 많고 양이 적다.’, ‘양이 많고 음이 적다.’로 해석하는 것과 ‘젊은(어린) 음’과 ‘젊은(어린) 양’으로 해석하는 차이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소(少)’를 ‘젊다’, ‘어리다’로 해석하는 관점은 사상을 변수 2개(2단계 분류 또는 2차원)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남자, 여자로 비유하면, 소음은 아직 **젊거나 어린** 여자로서 (음의 다소와 무관하게) **음이 점차 증가**하는 것(음의 기울기)이고 소양은 **아직 젊거나 어린** 남자로서 (양의 다소와 무관하게)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것(양의 기울기)이다. 이런 방식의 분류에 따르면 음이 증가하는 소음에 다시 음과 양의 속성이 다른 상황이 있고 양이 증가하는 소양에도 음과 양의 속성이 다른 상황이 있게 된다.

그에 반해 ‘소(少)’를 ‘적다’로 해석하는 관점은 태소음양의 분류를 변수 1개의 상황으로 본 것이다. 이는 『영추·통천』 “소음인은 음이 많고 양이 적으며 … 소양인은 양이 많고 음이 적으며 …”라는 설명과 같다. 다만 ‘소음(少陰)’을 ‘적은 음’ 또는 ‘음이 적다’로 해석하지 않고 ‘음이 많고 양이 적다’로 해석하며 ‘소양’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8에서 소음은 15h(135°)~21h(225°), 소양은 3h(315°)~9h(45°)에 해당하며, 태양은 9h(45°)~15h(135°), 태음은 21h(225°)~3h(315°)에 해당한다. 태양과 태음은 둘 다 기울기의 변화가 있으므로 각각 양 또는 음이 점차 증가하여 각각 최대값에 이르렀다가 점차 적어지므로 각각 노쇠하다는 의미가 사용된 어휘, 즉 노양(老陽), 노음(老陰)의 표현은 태양, 태음의 어휘에 비해 변수가 2개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V. 결론

『내경』에서 언급한 사상, 즉 태소음양(太少陰陽) 관련 어휘와 분류에 활용한 사례를 통계학의 변수(variable), 속성(attribute) 등 개념을 빌려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역학의 사상 분화(分化)를 그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내경』에서 태소음양은 ‘陰/陽+(中)+之(有)+陰/陽’ 또는 ‘陰/陽+(中)+之+太陰/少陰/少陽/太陽’ 형태로도 표현되었는데 이는 태소음양을 분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내경』에서 태소음양을 분류에 응용한 사례로 하루 24시간, 지역, 병소 깊이, 오테인(五態人), 사장(四臟), 약물 분류 등을 나열할 수 있는데, 그 사례에서 변수와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분류 체계가 적어도 한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지역, 병소 깊이, 오테인을 넷으로 분류할 때 각각 변수 1개, 속성 4개가 사용되었으나, 인체의 장기(肝, 心, 肺, 腎), 본초를 넷 또는 다섯으로 분류할 때는 각각 변수 2개, 속성 2개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사례에서 시간, 위도, 깊이, 음양, 높이 등 변수에 따른 속성(2개 또는 4개)의 도수(frequency)는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

변수, 속성의 관점으로 의역학의 사상 분화를 분석하면 변수 1개, 속성 4개와 변수 2개 속성 2개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를 의미할 때는 태소음양의 어휘가, 후자를 의미할 때는 노소음양(老少陰陽)의 어휘가 그 의미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통계학의 관점에서 『내경』의 태소음양 분류 체계는 적어도 한 가지가 아니고 적용되는 변수도 다양하므로 실제 측정을 통해 어떤 현상을 측정하고자 이를 태소음양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려면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

1. Jin HJ, Baek YH, Kim HS, Ryu JH, Siwoo Lee SW. Constitutional multicenter bank linked to Sasang constitutional phenotypic

- data.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5. 15:46.  
<https://dx.doi.org/10.1186/s12906-015-0553-3>
2. 김병태, 이기채, 연경화, 장원경. 통계학의 이해. 대전. 도서출판 대경. 2007.
  3. 金碩鎭. 大山周易占解. 서울. 大有學堂. 1994.
  4. 方廣 著. 朱震亨 編. 古庵醫鑑(丹溪心法附餘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5. 백영화, 진희정, 김호석, 장은수, 이시우. 체질 정보은행 구축현황에 관한 소고.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 24(2).
  6. 成百曉 역주. (懸吐完譯) 周易傳義(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09.
  7. 성태제. (개정판)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2003.
  8. 양력 지음. 강창환, 김남일, 문계곤 옮김. 주역과 중의학(1). 서울. 법인문화사. 2015.
  9. 王綸. 本草集要(歷代本草精華叢書 第三冊).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4.
  10.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1.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中). 北京. 北京出版社. 1997.
  12. 李雯. 118例神經症患者中醫五態性格分析. 中醫雜誌. 2001. 43(2). p.107.  
<https://link.oversea.cnki.net/doi/10.13288/j.11-2166/r.2001.02.029>
  13. 이승수, 이병학, 서의훈, 이경준 역. 기초 통계학의 이해. 서울. 교우미디어. 2018.
  14. 李濟馬 著. 申弘一 註解. 東醫壽世保元註解(下). 서울. 대성의학사. 2000.
  15. 李浚川 撰. 張敬善, 權寧奎, 金南一 譯. 醫易學思想. 서울. 法仁文化社. 2000.
  16.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17.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18. 尹暢烈. 醫易學. 대전. 주민출판사. 2007.
  19. 張介賓. 類經附翼(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0. 張元素. 醫學啓源(張元素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1. 장지청 지음, 오수현 옮김. 주역 완전해석(상권). 서울. 판미동. 2018.
  22.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張志聰醫學全書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共同教材 編纂委員會.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018.
  24.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 동의생리학(제3판). 원주. 의방출판사. 2024.
  25. 진강, 서의병 주편. 김병수 번역 및 해설. 한의학 기초이론. 원주. 의방출판사. 2023.
  26. 추만호. 사상(四象). 대전. 우리문화연구원. 2003.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